

“행정 편의” vs “예산 낭비”...여수 통합청사 건립 갈등 확산

행정공간 분산 민원인 불편 주장에 기존 청사 활용이 먼저 여수 갑·을 정치권 대립...시의회 심의 보류에 노조 반발도

여수시 통합청사 건립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흩어진 청사를 한 데 모아 행정 편의를 도모하는 주장과 예산 낭비 말고 기존 청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등 '3여(麗) 통합'에 따라 학동의 옛 여천 시청이 지금의 제1청사가 됐다.

행정구역은 하나로 통합됐지만, 청사는 학동이 제1청사, 여서동이 제2청사, 문수동이 제3청사(옛 돌산청사)로 부서져 분산돼 운용 중이다. 체육지원과, 산림과, 공원과 등 일부 부서는 전남경기장과 마마경기장 등에 흩어져 있다.

이처럼 여수시 행정 공간이 5곳으로 흩어져 있어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문수청사는 지난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여수시는 학동 제1청사를 증축, 행정 공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1청사 뒤편 조립식 건물 등을 철거한 뒤 사업비 392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여수시는 계획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의회가 이를 반대하면 자칫 사업을 포기해야할 상황이다.

여수시 청사 통합 논란은 해묵은 논쟁 중 하나다. 특히 제 2, 3청사가 있는 여서, 문수지구를 중심으로 주민과 정치권은 일찌감치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여수균형발전을 위한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범 시민추진위원회”는 3여 통합 이전 여수시청사로 사용했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건물을 매입해 제2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주철현 의원 등 여수갑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결성했다.

추진위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역에 역행하는 별관 신축을 철회하고 해양수산청 청사를 매입해 2청사와 중부보건지사로 활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바닥이고, 내년 세수도 13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별관 신축에 시비 4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수시의 행정공간 통합을 위한 분청사 별관 증축 계획안이 정치 쟁점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여수시 학동 본청사. <여수시 제공>

추진위는 이어 “관련 예산을 재난지원금 지급과 해수청사 매입에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최근 시청사 증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청사 별관 신축이 꼭 필요하다면 분산 청사로 인해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며 “분석 결과를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 주장했다. 여서·문수지구 등 여수갑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청사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여수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에 반발,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을)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시민의 행정 편의 증대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합청사는 필요하다”며 “인구 28만의 소도시에서 시청사가 8개로 분산된 것은 미래발 전방향을 역행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시 공무원노동조합도 논쟁에 가세했다. 공노조는 “별관 청사 신축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좌절됐다”며 “시와 의회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조는 이어 “지난해 9월 ‘통합청사 건립 이행하라’는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1인 시위에 이르기까지 8개로 쪼개진 청사 체제 종식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분리된 청사로 시민이 불편하고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해소를 위해 별관 증축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무성하다”고 한탄했다.

한편, 여수시민들은 통합청사 찬성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가 지난 4월 여수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동 제1청사 별관 증축 찬성이 67%, 반대가 33%로 조사됐다.

/여수=김정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군, 문화재청 주관 공모사업 대거 선정

향교서원 등 지역문화재 활용 야간조명 설치사업 등 4건 탄력

곡성군이 문화재청 주관 공모 사업에 대거 선정돼 다양한 문화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2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2건을 비롯해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무장애 공간조성사업 등 총 4건의 문화재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2억4000여만원이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서원과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이다.

곡성군은 ‘축제한마당-향교에서 신나게 놀자’를 주제로 곡성향교(문화재자료 27호)와 덕양서원(기념물 56호)에서 VR을 활용한 교육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선정돼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재’란 주제로 섬진강도개비마와 및 마천목사당(충정묘, 기념물 252호)에서 인형극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다. 옛 곡성역사(등록문화재 제122호) 및 주변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 곡성군 향교서원 활용 사업이 6년 연속 선정됐다.

에 야간 경관등을 설치해 야간에도 관광객들에게 문화재 향유 기회와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장애 공간조성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곡성군은 태안사에 위치한 적인선사 해철스님의 부도탑인 적인선사탑(보물 273호)에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무장애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많은 사람들이 곡성문화재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구례 ‘송만갑 판소리’ 대통령상에 유민희씨

무관중 대회로...220명 열띤 경연

구례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가 무관중 공연으로 개최됐다.

12일 구례군에 따르면 제24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가 지난 10~11일 이틀간 구례실내체육관과 동편제판소리전수관에서 열렸다.

애초 동편제판소리축제기간 중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제는 취소되고 무관중 방식으로 경연대회만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220명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다. 판소리 부문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구례 출신 유민희(35)씨가 선정됐다.

고수 부문 명고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최재명(20·서울예대 졸업)씨가, 전남도지



24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구례 출신 유민희씨가 소리를 하고 있다.

사상인 명창부 최우수상에 박애란(22·경기 성남)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생애 최초 주택구입 군민 취득세 감면

고흥군은 올해 7월10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군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고흥군은 올해 7월10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군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7월10일 이후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부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감면요건이 된다.

적용시기는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